

### 전문병원과 함께하는 전문메디컬 센터

#### 세계로동아병원·세계로메디컬타운 광산구 수완지구에 기공

‘세계로동아병원’과 ‘세계로메디컬타운’〈조감도〉이 최근 광주시 수완지구 광산구 장덕동 건립현장에서 정재훈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세계로동아병원은 부지 뒷면에 지하 2층·지상8층 규모로, 세계로메디컬타운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2개동이 연결되는 형태로 건립된다.

세계로동아병원은 지난 1995년 6월 이 지역에서 최초로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동아병원을 개원한 정재훈 원장이 이 지역 최고의 관절전문병원을 일구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다시 최고의 실력과 친절로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설립하는 관절 척추전문병원이다. 세계로메디컬타운은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치과 등 다양한 전문진료과를 유치해, 세계로동아병원과 함께 진료와 서비스를 전문화해 감으로써 세계적 수준으로 상생 발전하는 전문메디컬 센터의 역할을 한다.



정재훈 원장은 “세계로동아병원 및 세계로전문메디컬타운이 ‘전문병원과 함께하는 전문메디컬 센터’라는 새로운 병원경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아병원 개원 때부터 꾸준히 청소년들의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정재훈원장은 기공식 축하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탁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시엘병원 전영식 원장

#### 일본임학회 학술논문 우수상

여성 전문 병원인 광주 시엘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의 전영식(사진 오른쪽) 원장이 일본 불임학회가 주최하는 학술 논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 병원에 따르면 전 원장은 최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불임학회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난포액 내 단백질의 유전적 변형 규명’이란 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지닌 환자의 불임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체에 존재하는 ‘아포리포’ 단백질이 과다하게 발현되는 양상 및 유전적 변이를 조사한 것이다.

시엘병원은 최범채 대표 원장이 국내 불임학회는 물론 미국 불임학회, 유럽불임학회, 미국·캐나다 연합 불임학



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전 원장이 일본 불임학회로부터 논문상을 받게 돼 지역 병원으로는 드물게 불임 분야 연구 영역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최범채 원장은 “불임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 발표해 연구 중심의 여성 전문 병원으로 기틀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치과병원, 한국자가치아 뼈은행 설립

#### 버려지는 치아 저장 환자 치료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은 최근 치과병원 5층 경강홀에서 한국자가치아뼈은행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욱 한국자가치아뼈은행장은 김영준 치과병원 뼈은행장(치주과 교수)에게 사랑니 뼈은행 지침서를 전달했다.

치과병원 뼈은행은 ‘자가치아뼈이식 시스템’을 이용, 치조골과 구성성분이 똑같지만 버려지고 있는 치아를 활용해 환자 자신의 잇몸뼈 치료이식재로 만들어 치료하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 조기발병 치매

## 젊어진 치매...담배 끊고 취미활동 유지

‘조기발병 치매’는 ‘조로기 치매’라고도 불리며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다. ‘노인성 치매’ 또는 ‘후기발병 치매’는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치매다.

조기발병 치매에 대한 역학조사가 많지 않지만, 전체 알츠하이머병 중에서 5~10%가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조기발병 치매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국내에서 대한치매학회에서 조기발병 치매를 조사했는데, 전국 종합병원 14개 센터에 등록된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 65세 미만 치매 환자의 비율이 13.2%였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치매는 대부분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노인성 질환이지만 65세 이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병 치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족력이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치매가 20대에 발병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조기발병 치매의 증상과 진단=조기발병 치매는 노인성 치매와 유사한 치매증상을 보이지만, 노인성 치매에 비해 더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조기발병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치매로 진단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조기에 치매로 발병되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의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기억력 등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매를 의심할 수 있다. 사람 이름, 전화번호, 약속 등을 잊는다. 날짜나 계절 감각이 둔해지고, 물건 둔 곳을 기억 못하고 자주 찾는다. 같은 말이나 질문을 반복하며, 물건 이름이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길을 잃거나 헤매 적이 있으며, 계산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평소의 성격이 달라진다.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 정신상태검사,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신경심리검사, 뇌촬영(CT, MRI, SPECT, PET) 등이 필요하다.

치매는 뇌질환으로 인한 하나의 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질환은 9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이 규명되면서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치매의 원인을 빨리 발견해 잘 치료하면 10~15%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예비스, 아리셉트, 레미넬, 엑셀론 등의 약물치료로 기억력이 개선되고, 증상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혈관성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불면증, 우울증, 의심, 망상, 환각, 초조, 배회 및 공격적인 행동 등을 호전시킬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약물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신일선 정신과 교수가 조기치매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 유전적 요인...조기발견 중요

#### 완치 어렵더라도 호전 가능

#### 정기검진으로 성인병 예방을

선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시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고,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매 예방=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수십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원인 질환에 따라 예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치매의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증, 심장병 등의 성인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이들 병을 가진 경우에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로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하고 취미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기억력 훈련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순히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바둑을 두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우울증은 잘 치

료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적절하게 풀어야 한다.

다섯째,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타민 C와 E는 산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섯째, 과일과 흡연은 금한다.

일곱째,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거나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여덟째,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독에 걸려서 치료가 늦어지면 신경매독으로 진행되어 치매증상을 보이게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도 진행되면 HIV 바이러스가 뇌를 침범하게 되어 결국 치매로 진행하게 된다.

아홉째, 약물로 인해 치매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열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직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젊은 시절에 비해 기억력 및 인지능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면 치매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치매 전문 진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치매가 진행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치매가 발병하였다면 가능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일선 교수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치매퇴행성뇌질환센터장>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00611-증-18671호 광고

## 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

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간다.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필수적으로 피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 입 주변 등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 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 물론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특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내에

서 안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층에다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 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 감염 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알레르기)이 있을 수도 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내 성분이므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주로 손등, 목 등 전반에 걸쳐 주름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 15분 가량, 목 전체 시술 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통 2~4주 간격으로 3회 시술받게 된다.

### 비수술적 성형 ‘히알루론산 시술’

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히 피부와 관절,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